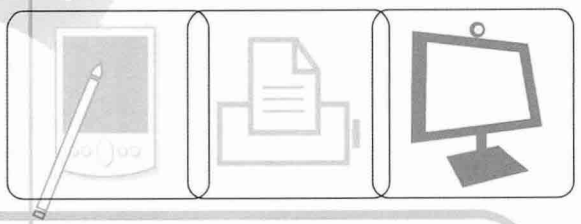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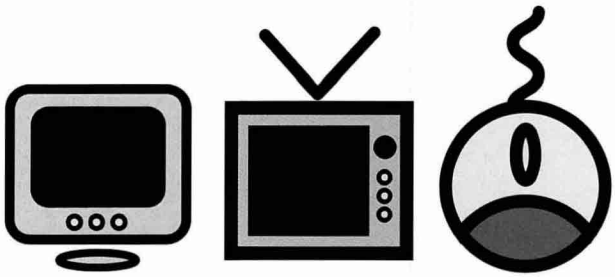


디지털 혹은 돼지털?

'Humanism thru Digital' 디지털 세상이 목표로 하는 이상향의 모습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닌가보다. 얼마전 가벼운 웃음을 짓게 하며 인구에 회자된 하나의 TV광고를 떠올려보자. 광고는 저녁 무렵 퇴근 길에 남편이 시장에 들러 생선가게 앞에서 생선을 고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것 저것 고르다가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 생선을 보여주고 선택하게 한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생선가게 주인할머니가 의아스런 눈빛으로 손님을 바라보자, 손님이 설명해준다.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에 할머니, 갸우뚱하며 한마디 던지는데, "돼지털?" 이란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젊은 남편에게는 '디지털'인 것이 할머니에겐 '돼지털' 일 뿐이다. 모든 이에게 디지털은 아닌 것이다.



'Humanism thru Digital' 디지털 세상이 목표로 하는 이상향의 모습이다. 삼성의 첨단가전제품 컨셉이 그러하고, SBS의 디지털시대 방송모토가 그러한 걸 보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휴머니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닌가보다. 얼마전 가벼운 웃음을 짓게 하며 인구에 회자된 하나의 TV광고를 떠올려보자. 광고는 저녁 무렵 퇴근 길에 남편이 시장에 들러 생선가게 앞에서 생선을 고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것 저것 고르다가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 생선을 보여주고 선택하게 한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생선가게 주인할머니가 의아스런 눈빛으로 손님을 바라보자, 손님이 설명해준다.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에 할머니, 갸우뚱하며 한마디 던지는데, "돼지털?" 이란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광고는 디지털 세상의 편리함과 인간미를 내포한 '휴머니즘이 녹아있는 디지털'을 표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젊은 남편에게는 '디지털'인 것이 할머니에겐 '돼지털'일 뿐이다. 모든 이에게 디지털은 아닌 것이다. 이 광고가 던져주는 화두 중 하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관한 이슈이다.

돼지털?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는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는 개념이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지역별, 계층별, 성별, 소득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격차 현상을 의미한다. 오늘날 디지털 격차 논의의 관심대상은 전화나 TV,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적 정보통신 수단(tool)의 차원이 아니라 최근 디지털 혁명의 주역을 담당해 온 PC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접속과 이용 가능성 여부에 집중된다. 정보격차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되는데, 첫째, 정보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매체접근성)으로 일종의 기회격차이다. 정보기기는 다른 상품에 비해 비교적 고가이고 짧은 제품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은 경제력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정보자원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정보동원력)으로 활용격차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기 사용법, 프로그램 활용능력, 핵심정보원 탐색능력 등 정보자료의 활용과 직결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정보기기를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지적 능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정보활용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가치있는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도 정보빈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정보기기와 정보를 활용하려는 의욕 및 수용태도(정보의식)로 의식격차이다. 흔히 정보마인드라 불리는 정보의식은 정보사용자가 정보의 유익성이나 유해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별해 낼 수 있는 역량과 관계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지역, 사회,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데, 우선 국가간 디지털 격차는 산업화된 국가와 개발도상국 국가 간 정보빈자와 정보부자간의 격차를 설명한다. 사회적 격차는 국가 내에서 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간의 격차 즉 소득, 교육수준, 인종, 세대, 장애에

따른 격차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격차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공공의 삶에 참여하고 동원하고 관계하기 위해 디지털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간의 차이 즉, 디지털정보의 활용도에서의 격차를 의미한다.

디지털 격차는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우선 낙관적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는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보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인식된다. 신기술 보급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평등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비관적 입장에서 보면, 정보화와 함께 디지털 통신매체를 통한 정보풍요 속에서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인식된다. 정보나 정보기기의 소유 및 사용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적 조치가 발동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산물인 정보기술이 기존 사회내의 권력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제라티가 될 것인가, 프로렉스가 될 것인가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데, 디지털 격차가 물리적 장벽을 넘어 사회적 장벽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사회전체적인 생산성 저하, 사회적 복지의 훼손(삶의 질), 사회적 통합에 장애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는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계층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찍이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디지털 사회의 시민계급이 3가지로 분화될 것임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TV만 보고 조립되어진 영상만 받아들이려 하는 프로렉스(Prolex),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쁘띠 부르주아지(Petite Bourgeoisie), 기술에 친숙한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접근에 유리한 전문직종인들은 상위계층으로 부상하고 정보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하위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상위계층을 디제라티(digerati: digital과 지식계급 literati의 합성어) 또는 virtual class라 부르고 이들의 사고와 이념을 'California Ideology'라 부른다. 이들 디지털에 익숙한 계급은 디지털 사회의 부를 독점하게 되고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점차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변모한다. 디제라티는 디지털시대의 파워엘리트로 존재하는데, 미국 최고 부유층 1% 중 35세 이하 청년디제라티가 5%를 차지한다.

문제는 정보격차에서 소외받는 층, 이른바 정보빈자들에게 부여된다. 정보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정보빈자들은 「20대80의 사회」에서 배척되는 80%로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로 삶을 영위한다. 티티테인먼트는 '엄마 젖'이란 뜻의 titty와 오락이란 뜻의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세상에 좌절한 사람들은 약간의 오락물과 먹거리에 만족하며 아무 저항없이 얌전하게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눔의 철학과 리터러시 필요해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디지털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합(digital integration)을 이룩해야 한다. 그 전제는 나눔의 철학이다. 선진국들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은 공공재로서 정보와 지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승자독점경제(winner-takes-all economy)에서 초래될 수 있는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정보·지식 독점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정책이 요구되는데, 디지털 경제가 정보화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증가시킨다는 인식에서 이들을 동참하게 하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보화로부터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을 타깃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격차가 디지털 사회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적, 신체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정보화로 인한 경제적 부를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평등 실현에 근접한다.

또한 개인행위적 차원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리터러시(Literacy)는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 즉 문자신호체계를 터득하여 메시지를 문자신호로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조합해 냄으로서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Computer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Knowledge Literacy로 크게 분류되는데, 컴퓨터 리터러시는 정보화교육에서 'ICT 소양교육'으로도 불리워지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 조작, 사용 등 기초적인 능력, 정보접근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의 생성, 처리, 분석, 검색, 활용 등 정보활용능력을 의미하며, 지식 리터러시는 확보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 즉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생산능력을 의미한다.

아날로그적 감성과 디지털 마인드

우린 디지털 제국의 노예가 된지 오래다. 하루 종일 핸드폰 없이는 살지 못한다. '용건만 간단히' 라는 금언은 찾는 이 없어 장식으로 전락한 공중전화에만 유용할 뿐이다. 우린 이미 침묵에 허전함을 느낀다. 핸드폰이 없으면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를 체험한다.

강아지가 애완동물의 개념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아무 때나 짖어대는 소리에 조용한 생활을 방해받는 사람들의 불평이 적지 않다. 주위의 동의를 구해야만 개를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정책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 목의 진동을 감지하여 미세한 전기자극을 주어 짖음을 방지하는 기계를 구매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이기적 목적에 영합하는 디지털 기술의 가학성이다. 이 얼마나 잔인한 발상인가. 주인이 반가워, 배가 고파 짖고자 할 때 어김없이 전기자극이 가해질 것이다. 디지털은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처럼 잔인한 기술이 되기도 한다.

앞서의 광고를 곱씹어 보면, 할머니에게 '디지털' 은 당신이 모르고 지내던 새로운 생선 이름과 같다. 자신이 잘 아는 생선, 진열된 생선만 잘 팔면 되는 것이다. 디지털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디지털' 이 되기도 하고, '돼지털' 이 되기도 한다. 디지털이면 인간에게 유용한 생활도구인데, 돼지털이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전락하거나 애물단지일 뿐이다. 돼지고기는 음식이 되지만 털은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돼지털도 붓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아날로그를 무시한 디지털이어서는 곤란하다.

여하튼 디지털 기기는 재래시장 할머니의 소박한 웃음을 전해주어 우리를 미소짓게 한다. 디지털 기기가 인간을 담아낼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다.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폰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아날로그 카메라를 여전히 사랑하며, 차곡차곡 쌓인 앨범은 인생을 되새김질해준다. 비틀즈는 LP에서 전설로 부활한다.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다. 역시 답은 인간이 주인공인 디지털 세상이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를 Delete해서는 안될 것이다. 디지털에 저장된 아날로그적 향수를 다운로드 해보자.

〈김원제 · 디지털저널리스트〉